

6 기획

계약서부터 살림살이, 월세와 안전 걱정까지 청년의 첫 집, 불안과 현실 사이에 서다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청년 1인가구 ③-집

“이렇게 혼자 사는데 짐이 많이 필요할 줄 몰랐어요. 계란후라이를 먹으려 해도 뒤집개가 필요하고, 친구들이 오면 나무젓가락도 구비해야 하더라고요.” 물건은 점점 늘어나고, 공간은 줄어든다. 이번 학기부터 자취를 시작한 김윤하(프랑스어학 2024) 씨는 혼자 사는 일상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얻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계약서부터 살림살이, 월세와 안전까지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온다. 청년에게 집은 자립의 상징이자 불안의 출발점이다.

혼자 계약서 검토부터 보증금 사기 뉴스 불안까지

“처음 집을 보러 다닐 때는 설렘만, 두려움이 반이었어요. 그런데 다섯 군데쯤 돌고 나니까 체력이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올해 3월 처음 자취를 시작한 장다희(무역학 2023) 씨는 혼자 부동산을 돌며 방을 구했다. 어렵게 찾은 원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중에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지, 집 내부 하자는 없는지 알 길이 없어 인터넷을 찾아봤다. 그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검색해 집주인 재정상태와 따져봐야 할 세부 사항을 알아봤다”며 “너무 불안해서 계약서를 읽고 바로 부모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말했다.

청년에게 ‘집을 구한다’는 건 외로운 전투다. 그간 배운 적 없는 부동산 지식을 혼자 익히면서도, 집주인·부동산중개업자에게 ‘눈 뜨고 코 베일 일’을 피해야 한다.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섰기에, 경제적 한계를 ‘공간’의 차원에서 실감하는 첫 단계다. 입주 후엔 집주인 눈치를 보고, 혼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보증금 사기 뉴스를 걱정해야 한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넘어갈 수 없는 구조다.

각종 사회 문제가 ‘1인 청년 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 집이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생활비와 공과금, 가전 관리, 청소와 쓰레기 처리까지 모든 게 개인 몫이다. 청년의 ‘독립’은 경제적 자립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돌봄의 공백을 의미하게 된 거다.

“
혼자사는 청년의방은 작지만,
그 안에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담겨 있다.
청년 주거 문제를
개인의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들여다봐야 할 이유다.”

좁은 공간, 팍 찬 생활 혼자 꾸려가는 살림의 무게

독립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생활의 총체적 변화를 뜻한

다. 냄비, 수저, 빨래건조대까지 모두 처음부터 새로 채워 넣어야 한다. 좁은 공간에 생활필수품이 모이면서, 집은 쉽게 ‘창고’가 된다.

“부모님 집에서는 늘 있던 게 다 새로 사야 하는 게 되더라고요.” 김윤하 씨는 이번 학기부터 서천동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짧게 살 거니까 집에 있는 거 몇 개 가져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은근히 필요한 게 계속 생겨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계속 다이소를 들락날락했던 것 같아요.” 단기 계약한 그는 짧게 살아서 살림이 필요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사야 할 것이 점점 늘어나 당황했다고 한다.

서울주거포럼의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좁은 공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은 대부분 20㎡(약 6평) 안팎이다. 이 작은 공간은 혼자 살아가는 정서적 기반이기도 하다. 귀가 후 불을 켜는 손길도,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도 모두 혼자다.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질 때 외롭죠.” 신유빈(미디어학 2024) 씨는 좁은 방 안에서 생활의 모든 짐을 떠안는 구조는 결국 피로를 낳다고 말한다. 생활비와 공과금, 가전 관리, 청소와 쓰레기 처리까지 모든 게 개인 몫이다. 청년의 ‘독립’은 경제적 자립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돌봄의 공백을 의미하게 된 거다.

안전과 비용 사이 ‘집’의 경계선

청년 1인 가구에게 집은 ‘은신처’이자 ‘위험시대’다. 김윤하 씨는 “축제 날에 12시 넘어서 혼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길가에 좀 있어서 무서웠던 경험이 있다”며 “특히 마차가 끊겨 걸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어두워서 무서웠다”고 말했다. 김 씨가 거주 중인 서천동은 국제캠 바로 옆에 자리한다.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지만, 정문 건너편에 비해선 한적한 편이다.

가스 점검, 소방 점검처럼 외부인이 집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난감하다. “혼자 사는데 소방 점검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현관문 스토퍼가

없어서 문이 잠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나 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건 채로 점검받아요.”

청년 주거는 언제나 안전과 비용의 저울질 위에 놓인다. 지난 8월 ‘다방’에서 발표한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73만 원, 보증금은 1,000만 원인 반면, 지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발표한 청년 월평균 소득은 274만 원이다. 즉, 청년 월평균 소득의 약 27%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의미다. 지난 9월부터 자취를 시작한 이귀환(미디어학 2021) 씨는 “현재는 월세를 부모님과 반반 부담하고 있는데, 취업해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보안이 좋은 신축 오피스텔로 옮기려면 월세가 10만~20만 원 더 비싸진다. 결국 많은 청년은 ‘조금 더 불안하지만 저렴한 집’을 선택한다.

혼자 사는 청년의 방은 작지만, 그 안에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담겨 있다. 청년 주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들여다봐야 할 이유다. 방 하나의 세상 속에서 청년들은 오늘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